

브리콜라주로서 질적 연구의 이해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as Bricolage

허창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Changsoo Hur(cshur@cnu.ac.kr)

요약

북미의 경우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의 논리와 사고의 배경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예술운동의 하나로 그것이 가진 특성을 비판과 실존이라고 할 때 질적 연구의 개념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질적 연구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하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 예술 등의 영역에서만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질적 연구에서는 매우 간헐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이를 통해 질적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논의를 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질적 연구는 성찰을 통해 이해와 해체를 통한 재구성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브리콜라주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과 다양성을 가진 해석과 이해를 위해 짜집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라라는 명제는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브리콜라주 | 질적 연구 | 엄밀성 | 복잡성 | 비판성 | 해체 | 짜집기 |

Abstract

As a background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concept of bricolage is very common in the North America. As a movement of art area, because, it has characteristics of criticality and existence which is very close to the defini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However, regardless of recent rapid wide-spread of qualitative research with the world trend of research methodology, it is very unusual that scholars are rarely discussing on the concept of bricolage in South Korea. In literature review, scholars conceptualize bricolage in literature, art, and so on except qualitative research field. Thus, I realiz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ncept of bricolage in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it, scholars will understand more about the defini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ccordingly, I try to prove the thesis 'qualitative research is bricolage' in this article. In conclusion, scholars commonly define qualitative research to involve the meanings of 'reflection', 'understanding',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nd illustrate also the concepts of bricolage in a praxis o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with getting together of rigorousness, complexity, and criticality. I realize that these notions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in this study.

■ keyword : | Bricolage | Qualitative Research | Rigorousness | Complexity | Criticality | Deconstruction | Quiltmaking |

* 본 연구는 2015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지원사업(CNU학술연구과제)에 의해 진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05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05일

교신저자 : 허창수, e-mail : cshur@cnu.ac.kr

I. 서론

질적 연구는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인류학과 함께 퍼진 연구 방법의 한 영역이다[1]. 특히 1960년대 이후 사회학적 배경과 접목되면서 다양한 장르로 급속하게 확장 되었고, 심지어 적용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학문의 영역 간 경계의 모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흔히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양적 연구와 함께 인문·사회과학 영역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시점에서 보면 실제적 국제적으로는 교육과 같은 특정 영역의 경우 양적 연구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이를 대표하는 것은 브리콜라주(bricolage)이다. 처음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덴진과 링킨(N. Denzin & Y. Lincoln)이 편집한 첫 핸드북(handbook)에서 부터이다[2]. 이들은 질적 연구를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구의 방법론의 기본적인 형식을 브리콜라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콜라주의 의미[3]는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 이후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질적 연구의 개념을 브리콜라주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은 덴진과 링킨이 시작이다. 이후 새로운 편집본이 출판될 때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진화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들의 주장을 기초로 할 때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의 개념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덴진과 링킨의 브리콜라주 개념을 확장한 학자는 킨첼로(J. Kincheloe)이다[4][5]. 2000년대로 접어 들면서 그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것을 인식론과 존재론으로까지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 엄밀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였고, 결국 2011년 제4판 질적 연구 핸드북에서는 확장된 개념을 공식화하였다. 즉 브리콜라주의 존재론적 논의를 포함한 비판교육학에 기초한 질적 연구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6]. 이처럼 북미의 경우 질적 연구와 브리콜라주의 개념적 동일성은 인정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질적 연구가 확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진 개념이 브리콜라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설다. 예술, 문학, 영화, 의류 등의 영역에서 간헐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질적 연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철학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기술적인(technical) 적용에만 집중된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 다소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현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논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브리콜라주의 특성을 소개하고 그것에 기초한 질적 연구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질적 연구는 흔히 방법론적 기술(technic)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방법론과 더 나아가 인식론과 존재론적 관점에서 매우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개념적 배경인 브리콜라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의는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개념적 배경을 브리콜라주를 통해 소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 분야보다는 예술,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문학 중 소설과 시에서 브리콜라주는 중요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소설이나 시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반(反)하여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서사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7][8]. 즉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편적 서사들의 조각들의 집합을 브리콜라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팬소설(fan fiction)은 팬들이 실제 드라마,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 차용하여 쓴 소설을 말한다. 이는

미디어 텍스트의 소비자들이 제한된 재료, 문화상품을 가지고 짜기위 만든 텍스트이다[9]. 이는 '밀렵(poaching)' 개념[10]으로부터 온 것인데, 대중은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각들은 취해 재조합하는데 이는 브리콜라주와 닮았다. 이는 아이들의 팬들이 상업주의 자본주의 등과 상관없이 팬들만의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과정도 유사하다고 하였다[11]. 시인의 기법에서도 의미의 영역을 넘어선 감각적 표현, 즉 개별적 이미지 조각들을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것 같은 모종의 신호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 기법은 브리콜라주로 설명할 수 있다[12].

다른 예로 모리슨(T. Morrison)의 아동 문학에서는 브리콜라주는 일종의 화해 도구로 활용하였다. 현대가 가지고 있는 편협, 이데올로기 간 화해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13]. 영국 영역에서도[14],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만남'의 의미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의 보편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15]. 또한, 일제 말부터 해방 후까지 조선 프로연극운동으로 낭만파, 좌파 연극인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연극이 가진 정치성이 발생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배일(排日), 반제(反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브리콜라주로 개념화하였다[16]. 브리콜라주가 논의의 핵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反)'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특성을 가진 운동을 일컫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영역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멀티미디어 영상 작업에서 디지털 아포리아(aporia)를 브리콜라주[17]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수용해서 전유하면서 파편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브리콜라주를 사용하고 있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서 주인공인 '병구'가 버려진 다양한 것을 얼기설기 짜기위 도구를 만든 행위는 브리콜라주의 일종이라 하였다[18].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G. Deleuze & F. Guattari)가 보여준 브리콜라주는 분열(증)자라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19].

외류 영역에서도 브리콜라주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활용된다. 예컨대, 2000년으로 접어들어 이국적 이미지

의 유형이 의복에서 확장되고 있는데 한 특징을 키치적 브리콜라주로 개념화하고 있다[20]. 이국적 이미지 요소인 '빈티지', '키덜트', '아티스틱', '극단적 절충' 이미지는 다소 낯선 것들 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펑크 패션도 고도의 장식들과 결합하였는데 이는 아무렇게나 가봉된 쓰레기를 걸쳐 입은 또는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조형성과 시각성에 기초하여 브리콜라주를 생산한다[21].

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로 브리콜라주를 활용하고 있다. 트랜스미디어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결합, 대체, 융합되는 복합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브리콜라주라 하였다[22].

질적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간헐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성상의 비논리성과 학문적 그리고 비학문적 자료들을 활용한 일상성을 담은 논의 형식의 연구방법론을 가진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3][24].

요컨대, 국내의 경우 브리콜라주 개념의 활용은 질적 연구보다는 문학, 예술,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개념적 특성은 잡다한 것들을 모아 구성한 짜집기, 기존의 질서에 반(反)하는 태도에 기초한 행위, 즉 비판적인 실천(praxis), 융합과 다양성을 공존을 통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국내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적용이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적 논의가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III. 브리콜라주의 이해

브리콜라주는 실용적 예술(practical art)과 순수예술로 활용 가능한 사물의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하는 작업으로 생산물을 구성 또는 창조한다[25]. 단어 그 자체는 프랑스어 동사 'bricoler'(작은 수선, 아마추어로 무엇을 만들다)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to tinker(어설프게 손보 다, 고치다)' 또는 'do-it yourself(DIY)'(스스로 하는)이다. 브리콜라주가 시작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45년 이래 제창되고 있는 반 미술적, 반프로페셔널리즘의 미술운동, 비틀린 주체나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수법으로서 권위파를 포함한 전통적인 미술의 상식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문, 아스팔트, 벽돌 등의 재료를 활용한다. 말하자면 야생의 미술이자 브리콜라주의 미술이다[3].

한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이해는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나 출신 아나츄이(El Anatsui)는 식민주의를 비판하듯 버려진 병뚜껑, 상품의 포장지, 알루미늄 캔 등을 상품 부속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과 면을 창조해 내고 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급화되고 권위적인 전통적 특정 재료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탈식민주의 태도를 통해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여 미(美)를 추구하고 있다.

브리콜라주는 예술 뿐 아니라 철학, 교육, 경영 등의 영역에서도 넓게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대중문화의 경우 의상 분야의 ‘Derelict’는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의상을 제작하는 기법인데 이는 브리콜라주의 한 예이다. 또한, 과거 1980년대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맥가이버(MacGyber)와 A-특공대(The A-Team)에서 주인공들이 수행했던 위기상황에서 주변의 주어진 것들을 활용한 도구 제작 방식 또한 브리콜라주이다. 예술 영역, 즉 음악, 시각 예술, 건축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문학 등에서 브리콜라주는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심리학에서는 각 개인의 내적 인지 과정을 일컫는 방법으로 브리콜라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구성물로 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해당된다[26]. 특히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인지 과정을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27].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 IS) 연구에서도 브리콜라주의 개념은 활용되고 있는데, 체제개발(ISD,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과정은 브리콜라주의 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28]. 그리고 문화연구, 철학 등에서도 브리콜라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데리다(J. Derrida)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모든 담론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9].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는 분열적 생산자 또는 분열(증)자(schizophrenic producer) 생산의 특성으로 브리콜라주를 개념화 하였다[9].

여기서 의미하는 분열(증)자의 의미는 자본주의와 프로이트(S. Freud) 정신분석학이 생산하는 주체 중 하나로 ‘정상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즉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경계 내 그리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 내 존재하는 자와는 반대에 위치한 비정상인 또는 분열(증)자를 의미한다. 분열(증)자는 정상인에 의해 생산되는 존재인데, 정상인은 욕망이 자본주의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요구에 절제된 상태의 존재지만, 분열(증)자는 이를 탈주할 수 있는 욕망을 표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즉 욕망 기계의 탄압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분열증은 생산과 재생산을 하는 욕망 기계의 특성이다. 생산에 대한 언급은 생산된 대상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자본주의의 관점과는 달리 욕망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과정, 즉 ‘생산하기’가 생산의 일차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과정으로 인식되는 생산하기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 개념을 불러온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분열(증)자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브리콜라주를 행하는 브리콜뢰르와 같은 탈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은 분열(증)자로 낙인된다. 카프카(F. Kafka)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의들을 볼 때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은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의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본 연구자는 레비스트로스처럼 과학지식도 우연과 필연의 순환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는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브리콜라주라는 의미 그 자체만을 볼 때,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지식 형성의 방법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는 예술, 문학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철학 영역에서도 넓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브리콜라주적 지식의 관점은 이미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또한 교육 영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발전의 뒤꽂무니

를 따라가기보다는 현존하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브리콜라주하여 미래를 위한 삶의 창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킨첼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킨첼로는 질적 연구와 브리콜라주를 등식화하는데 대표적인 학자이다. 연구에서 지식생산의 엄밀성(rigor)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학문에서는 흔히 거론되는 문제 제기이다. 예컨대, 질적 연구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데리다가 제시한 엄밀성의 중요성에 따라 타당도 검토를 제시한 것도 있다[30][31]. 이는 과학적 논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반론을 위한 개념으로 엄밀성에 대한 논의이다. 킨첼로도 유사한 문제 제기인데, 특정 학문의 논리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4]. 이에 부당함의 지적과 함께 브리콜라주는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탐구 방법뿐 아니라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그에 포함된 요소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적 철학적 개념(notion)들을 사용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추적에 있어 살펴보고 해석하는 과정에는 다중방법론적 전략(multi-methodology)과 다중관점(multi-perspective)으로 접근해서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다중(multi-)'이 가진 의미는 다양한 전통(tradition) 그리고 동시대(contemporary) 이론, 방법론, 방법 등을 포함한다. 즉, 연구 수행은 특정 학문(disciplinary)에 의존한 수동성에서 간학문(inter-disciplinary)에 의한 능동적인 접근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능동성은 변증법적 관점(dialectical view)을 의미한다. 특정 학문과 간학문의 변증법적 접근을 통한 상승적인 과정을 끌어내야 한다. 변증법에 의해 형성되는 심층적인 간학문 생산을 위해 그리고 생산 그 자체인 브리콜라주는 '다중'의 의미를 가진 관점을 가져오는 상승작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 비판성, 그에 의한 심층적 해석적 해체적 과정은 새로운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식 생산을 구성한다. 따라서 브리콜라주는 단순히 방법론적 다양성만의 의미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존재론(ontology)과 인식론(epistemology)적 감수성에서 수행되는 것임을 강조하

였다. 이는 덴진과 링킨이 질적 연구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1]보다 더 특성화하였고, 확장한 것이다. 특성화되었다는 의미는 브리콜라주를 변증법적 비판성의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이며, 확장한 것은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논의 당시 질적 연구는 방법론의 범주 안에서 주로 논의하던 시기라서 이는 상당히 도전적이라 할 수 있다[32]. 이러한 확장에 대한 의심을 담은 질문은 바로 제기된다. 새로운 브리콜라주와 브리콜뢰르의 논의에 대해서 환영하며 전적인 동의를 하지만, 그 가능성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33]. 가능성의 정당성에 대한 초점은 바로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브리콜라주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자들도 이에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간단한 논쟁점을 제시하는데, 교육 영역에서 교사는 공적인 지성인으로 연구자이며 브리콜뢰르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34], 비판적이라는 의미는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 따른 권력관계와 정의를 위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확인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35].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자신의 논리에 대한 정교함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5].

우선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접근하는 태도는 능동적(active)이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능동성은 연구자가 접하는 모든 존재론과 인식론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적 도구들과 연구 대상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며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질적 연구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다[36]. 둘째 브리콜라주는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추적이다. 지식의 존재나 인식은 매우 복잡한 논리 속에서 엄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브리콜라주라고 한다. 여기서 복잡성에 대한 특성을 특정(또는 단일) 논리로 된 지식(monological knowledge)을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지식을 편협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물론 특정(또는 단일) 논리에 의한 지식의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셋째, 브리콜라주

에서 복잡성은 엄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13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 ① 실재(reality)의 표출(Explicate)과 내장(Implicate) 질서: 이론물리학의 양자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관찰 가능한 표출된 질서는 러시아의 인형처럼 지속해서 감싸고 있는 내장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재는 이와 같은 구조적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브리콜되르는 감싸고 있는 내장 질서를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맥락을 통해 찾아내는 연구자라고 하였다.
- ② 보편성(universalism)에 대한 의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에 의해 개념화되는 실재(reality)에 대해 존중해야 하므로 기존의 보편성은 상황과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 ③ 다의성(polysemy):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 ④ 문화적 상황에서의 삶의 과정: 사회문화의 상황적 이해가 필요하다.
- ⑤ 연계성(relationships and connections)의 존재론: 인간은 관계와 연계 속에서 존재론적 실존을 이해해야 한다.
- ⑥ 교차하는 맥락(intersecting context): 다양한 맥락의 교차성에 대해서 인식한다.
- ⑦ 다중 인식론: 실재(reality)의 다차원적 이해는 다중적인 인식론의 이해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
- ⑧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문자, 문장, 이야기 간 연계성, 텍스트와 맥락의 연관성 등 다양한 텍스트 간 연관성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
- ⑨ 담론의 구성성: 문법과 실행으로 구성되는 연구 이야기의 담론적 구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담론의 실행에 있어서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담론은 푸코(M. Foucaul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⑩ 모든 지식에 대한 해석(interpretive)적 관점: 해석은 지식생산의 중요한 행위이다. 연구 결과의 생산물은 해석적 이해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
- ⑪ 연구결과에 대한 창작적(fictive) 차원의 내러티브:

연구 결과에 대한 재현은 사실 그 자체라는 인식인 이제는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학문적 기술(description)과 함께 창작적 내러티브(narrative) 형식의 요소들을 담은 재현(representation) 전략이 필요하다.

- ⑫ 모든 연구 방법 내 문화적 가정 포함: 지식생산에는 특정 방식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이해를 위한 모든 연구 방법에 포함 되어야 한다.
- ⑬ 권력과 지식의 관계: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권력과 지식,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는 M. Foucault의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다.

연구에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술한 13가지는 모두 브리콜라주에서 의미하는 복잡성이고 엄밀성을 설명하는 특성이다. 즉 13가지의 브리콜라주로부터 생산되는 의미와 개념이 바로 킨켈로가 의미하는 브리콜라주의 복잡성과 엄밀성이다. 브리콜라주의 구성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교육과학적 복잡성의 개발이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 생산을 위한 셀 수 없는 행위의 연계성 표현이 브리콜라주이며, 이를 행하는 연구자인 브리콜되르는 다양한 복잡성 엄밀성과 협약하는 존재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생산에 해당되는 것뿐 아니라 존재론적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브리콜라주 방식은 그런 면에서 복잡성의 존재론임을 함축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은 다각검증법(crystallization)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보다 전통이 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브리콜라주는 단순히 방법론적 접근뿐 아니라 존재론과 인식론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존재론적 입장에서 브리콜라주가 다루는 것은 탐구의 사태와 현존재의 복잡성,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생산의 본성이다. 이런 과정에 다중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다양성에 대한 투입으로 구성된 것을 텐진과 링컨[37]은 다섯 가지 브리콜라주를 예시하고 있다고 킨켈로는 주장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법론적 브리콜라주는 다양한 방법과 방법론을 도구로 활용하여 짜집기한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브리콜라주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론을 도구로 짜집기한 것을 말한다. 이 둘에서 '다양한'이 가진 의미는 개념화된 기존의 방법론과 이론적 담론 뿐 아니라 출현 가능한 것까지 포함한다. 해석적 브리콜라주는 다중성, 복잡성, 다차원성 등의 전략에 의해 해석되고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킨첼로는 특히 해석학적 순환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브리콜라주는 연구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함축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짜집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판성과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러티브적(narrative) 브리콜라주는 연구 질문과 진행 과정에서부터 결과의 생산까지 내러티브적 지향을 추구한 짜집기이다. 특히 지식과 존재의 본성 그 자체가 내러티브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의 짜집기를 의미한다. 연구자의 이해로는 이 5가지 브리콜라주는 덴진과 링컨에게는 다소 가벼운 예시 정도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킨첼로에게 이 5가지는 브리콜라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인식론 및 존재론의 시각을 입증하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브리콜라주는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구성주의, 역사성의 특성이 있고 더 나아가 철학연구에서 인식론적 해석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킨첼로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술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브리콜라주에 의한 해석에서 비판적 해석학(critical hermeneutics)이 핵심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엄밀한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제공한다.

- ① 탐구 객체는 내포하고 있는 많은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 ② 연구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에 대해 공감한다.
- ③ 의미 생산은 인간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
- ④ 분석한 텍스트는 살아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주변이나 그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⑤ 위와 같은 형식의 이해와 정보 제공 행위의 교차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서 생산되는 것이 비판적 해석학에 의해 형성되는 해석이라고 하였다. 또한 엄밀한 해석은 바로 해석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브리콜라주는 연구 주체와 대상의 피지배성, 예측성, 주변성, 소외성(marginalized)을 위한 목소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브리콜라주는 어떤 완성된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여러 모자란 것에 대한 추적이 끊임없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VI. 결론: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다.

국내에서는 질적 연구 영역보다 다른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브리콜라주의 개념은 주어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한 짜집기, 비판적인 실천적 행위, 다양성과 융합의 공존을 통한 재구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국외의 여러 학자가 주장하고 그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질적 연구에 적합하도록 논의한 킨첼로의 주장을 요약하면, 브리콜라주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방법의 시각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엄밀성과 복잡성이다. 이 두 개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의존적인데 전자는 후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족할 수 있다. 이들을 1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개념들은 맥락이 가진 질서, 상호맥락성, 다의성, 연계성, 특수성, 텍스트의 교차성, 담론의 구성성, 문화 관련성, 지식과 권력 관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행위로는 객체에 대한 비판적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의는 국내외 브리콜라주 활용의 사례, 킨첼로의 개념적 주장,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로부터 시작하고 덴진과 링컨,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비판적 해석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일상적이고 권력적이지 않은 다양한 도구들과 재료들을 특정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일시성, 우연성, 그리고 엄밀성 등에 따라 자유롭게 짜집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브리콜라주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예술영역의 운동처럼 기존의 거대담론에 반하는 행위와 일상에 의존한 새로

운 의식적 해방을 담고 있다. 이것이 덴진과 같은 질적 연구자들에 의해 방법론적 지향으로써 발전하였으며 킨첼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확장된 개념들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의는 다소 불균형적으로 논의된 킨첼로의 브리콜라주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보면서 기존의 다른 주장과 실행들과 접목시켜 총체적으로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엄밀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목적인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이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면서 본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개념은 요약할 수 없다[1]. 그 이유는 질적 연구는 시간적 역사성을 가지고 진화하면서 직면한 쟁점들을 해석적 성찰을 통해 이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하면서 그 개념 또한 다양하고 복잡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보다는 그 논의들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기술지는 질적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활용한 방법론이지만 덴진과 링컨에 의하면 지금도 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1]. 따라서 질적 연구의 개념은 역사적 흐름을 통해 그 순간마다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때론 각각의 의미로, 즉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러한 다양함과 복잡함 속에서도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존재한다. 이 교집합 내 개념들의 짜집기가 질적 연구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인류학자인 조용환은 질적 연구의 일반 모형을 구성-해체-재구성, 즉 질(質)에서 문(文)을 구성하고 질로 문을 해체하여 다시 질에서 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였다[38][39].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해체-재구성은 질적 연구자들 간에는 매우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스테인버그(S. Steinberg)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모두 비판적이라고 하였다[40]. 이는 연구 대상과 기존 지식이 가진 보편적 질서를 대하는 질적 연구자들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베송과 스쿼드베르그(M. Alvesson & K. Skoldberg)는 질적 연구를 성찰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였다[41]. 이런 개념화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자가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질적 연구는 성찰(reflective)을 통한 이해(understanding),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한 재구성(reconstruction)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브리콜라주가 추구하는 엄밀성과 복잡성, 그리고 예술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반(反)의 의미를 담은 비판, 성찰 그리고 실존성의 의미들이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고 개념을 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태도와 행위 또는 실천을 통한 짜집기의 노력은 해체와 재구성으로 의미화할 수 있으며 비판적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이론적 방법론적 지향과 태도 그리고 실천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의 브리콜라주된 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의미의 강조 정도에 따라 브리콜라주를 수식하는 형용사들도 달라진다[1].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미들을 비교할 때, 질적 연구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은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N. Denzin and Y. Lincoln,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The Sage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1-19, SAGE Publications, 2011.

[2] N. Denzi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94.

[3] C. Lévi-Strauss, *Claude, La Pensee Sauvage, 1966*,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1.

[4] J. L. Kincheloe, "Describing the Bricolage: Conceptualizing a New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Vol.7, No.6, pp.679-692, 2001.

[5] J. L. Kincheloe, "On to the Next Level: Continuing the Conceptualization on the Bricolage," *Qualitative Inquiry*, Vol.11, No.3,

- pp.323-350, 2005.
- [6] J. L. Kincheloe, P. McLaren, and S. Steinberg, "Critical Pedagogy and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4Th Ed.), "The Sage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163-177, SAGE Publications, 2011.
- [7] 김영찬, "오늘은 '장편소설'과 '이야기'의 가능한 미래," 어문론집, 제62권, pp.421-445, 2015.
- [8] 성은애, "영국 교양소설의 진화: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틱스'," 근대영미소설, 제21권, 제1호, pp.27-50, 2014.
- [9] 김다혜, "미디어 팬 소설, 텍스트 밀렵과 브리콜라주의 세계," 문학과사회, 제25권, 제2호, pp.238-255, 2012.
- [10] M. de Certeau, "L'invention du Quotidien, Vol.1, Arts de faire" 1980, S. Rendall trans,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11] 문강형준, "우상의 황혼: 한국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시민과 세계, 제17권, pp.281-296, 2010.
- [12] 김영희, "상상계에서 타진된 신호들.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pp.165-174, 2008.
- [13] 김애주, "위반의 미학: 토니 모리슨의 아동 문학과 브리콜라주 복원," 신영어영문학, 제30권, pp.1-16, 2005.
- [14] 백훈기, "피터 브룩의 연출 작업과 '빈공간'에 드러나는 브리콜라주,"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161-171, 2010.
- [15] 김도일, "장소 특정적 연극으로서의 <관청시민 아파트 가, 나, 다>와 <One day, Maybe. 언젠가> 연구," 드라마연구, 제43권, pp.5-26, 2014.
- [16] 이민영, "극단 낭만좌, 좌파 연극인들의 존재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제46권, pp.93-121, 2014.
- [17] 여금미, "디지털 아포리아. 영화연구," 제65권, pp.143-170, 2015.
- [18] 김지훈, "판타지와 대항-기억으로서의 브리콜라주 -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양가적 상상력," 문학과 사회, 제16권, 제3호, pp.1295-1311, 2003.
- [19] G. Deleuze and F. Guattari, "L'Anti-Œdipe," 1972, Trans. by R. Hurley, M. Seem, and H. R. Lane(2005, original translation in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재인 역(3판),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 [20] 이미연, "이국적(exotic) 이미지의 유형 확장: 2001년~2006년 국내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31권, 제11호, pp.1634-1644, 2007.
- [21] 권하진, "2000년대 이후 나타난 핑크 패션의 미학적 고찰,"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69-89, 2015.
- [22] 전경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텍스트 및 이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243-250, 2010.
- [23] 허창수, "탈식민주의 이론과 실제의 플라주,"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3호, pp.23-48, 2011.
- [24] 허창수, 이주옥, "일상 속 숨겨진, 당연시 여기는 폭력들,"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제2호, pp.173-205, 2008.
- [25] <https://en.wikipedia.org/wiki/Bricolage>, 2012.
- [26] K. E. Weick,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ing (2nd ed.)*, Random House, 1979.
- [27] J. Sanchez-Burks, M. Karlesky, and F. Lee, "Psychological Bricolage: Integrating Social Identities to Produce Creative Solution," In C. Shalley, M. Hitt, and J. Zhou (Eds.), *Oxford Handbook of Creativ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p.93-102,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28] J. Bansler and E. Havn, "Improvisation in Action: Making Sense of IS Development in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Action in Language, Organis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ALOIS 2003), pp.51-63, 2003.
- [29] J.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 In R. Macksey and E. Donato (Eds.), *The Languages of Criticism and the Science of Man*, pp.247-265,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0.
- [30] P. Lather, “Fertile Obsession: Validity after Poststructuralism,” *The Sociological Quarterly*, 제34권, 제4호, pp.673-693, 1993.
- [31] 조재식, 허창수, 김영천, “교육학/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타당도 이슈들: 그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제1호, pp.61-95, 2006.
- [32] Y. S. Lincoln and E. G. Guba,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pp.163-188, 2000.
- [33] Y. S. Lincoln, “An Emerging New Bricolage: Promises and Possibilities—A Reaction to Joe Kincheloe’s Describing the Bricoluer,” *Qualitative Inquiry*, Vol.7, No.6, pp.693-696, 2001.
- [34] W. Pinar, “The Researcher as Bricoluer: The Teacher as Public Intellectual,” *Qualitative Inquiry*, Vol.7, No.6, pp.696-700, 2001.
- [35] P. McLaren, “Bricklayers and Bricoleurs: A Marxist Addendum,” *Qualitative Inquiry*, Vol.7, No.6, pp.700-705, 2001.
- [36] 허창수, *비판적 브리콜라주와 박물관 교육*, 김명희 편저, *박물관 교육과 질적 연구*, pp.245-274, 아카데미프레스, 2015.
- [37] N. Denzin and Y. Lincoln,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The Sage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pp.1-28, 2000.
- [38] 조용환,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1999.
- [39] 조용환,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 연구*, 제15권, 제2호, pp.1-21, 2012.
- [40] S. R. Steinberg, “Preface: What’s Critical about Qualitative Research?,” In S. R. Steinberg & G. S. Cannella (Eds.), *Critical Qualitative Research*, pp.ix-x. Peter Lang, 2012.
- [41] M. Alvesson and K. Skoldberg, *Reflexive Methodology: New Vista for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2010

저 자 소 개

허 창 수(Changsoo Hur)

정희원



- 2004년 8월 : 미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과학교육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전공(철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과정, 비판교육학, 질적연구방법, 국제교육협력